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7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8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만공사, ITT 자동운송시스템 개발 완료
- 광양항, 7,846억 원 투입 'K-스마트항만' 구축 추진
- 울산항 내해부두, 철재 전용부두 지정

국외 항만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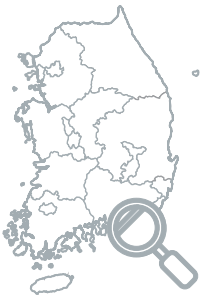
- 싱가포르항, 통합 공급망 허브 구축 본격화
- 중국 항만, 8월 수출 증가율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항 투자 프로젝트 착수 추진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25년 7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1.6% 증가
- 8월 자동차 수출 역대 8월 최대 실적, 대미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
- 국내 철강업계, 미국 50% 관세 직면으로 산업 재편 불가피 전망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부산항만공사, ITT 자동운송시스템 개발 완료¹⁾

- 부산항만공사(BPA, Busan Port Authority)는 국내 최초 자동화 환적운송 체계인 타부두 환적(ITT, Inter Terminal Transportation) 자동운송시스템 개발을 완료함
 -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된 ITT 자동운송시스템은 친환경 궤도형 이송장비와 AI 기반 운영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됨
 - 이송장비는 2대 1세트의 셔틀로, 20피트 이상 컨테이너를 시속 20km로 이송할 수 있는 배터리 기반 무인 자율주행 장비임
 - 운영관리시스템은 실시간 위치 파악, AI 기반 최적 오더 알고리즘, 셔틀 상태 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탑재함
- 이번 개발은 부산항의 환적 화물 운송 효율성과 물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6년부터 단계적 현장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임

ITT 무인 자율주행 셔틀



자료: 부산항만공사,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129>(2025.09.23.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9.09.),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129>(2025.09.23. 검색)

2 BPA,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들과 업무 협력 강화

-  BPA는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 9월 9일 BPA는 SK이노베이션과 ‘부산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업무협약’을 체결함²⁾
 - 협약을 통해 양사는 내트럭하우스(화물차휴게소) 등 부산항 내 유희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 또한, 9월 22일 BPA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부산항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AI 파트너십 협약(MOU)을 체결함³⁾
 -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AI 인력 양성, AI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 항만 AI 생태계 활성화, 공동 R&D 협력 등을 추진함
 - 이를 통해 부산항을 국내 AI 기술의 테스트베드(Test-bed)로 제공하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개발한 혁신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사업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임
-  이러한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 BPA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9.10.),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137>(2025.09.23. 검색)

3)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9.22.),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194>(2025.09.23. 검색)

2) 인천항



① 인도네시아 신규항로 ‘KI8’ 개설, 자카르타 항로 4개로 확대됨⁴⁾

- ❖ 지난 7월 17일 CMA CGM 소속 2,822TEU급 씨엔씨 팬서호(CNC PANTHER)가 인천항에 첫 입항하며, 인천-인도네시아 간 신규 ‘KI8’ 서비스가 공식 개설됨

 - 이번 신규 항로는 인천-상하이-닝보-자카르타-스마랑-호치민-부산-인천을 주 1항차로 연결하는 정기 컨테이너 항로임
 - CMA CGM, 천경해운, Sealead Shipping 등 3개 선사가 1,700~2,800TEU급 선박 3척을 공동 투입해 운영함
 - 선사별 서비스명은 각각 KI8(CMA CGM), CIK(천경해운), SEA7(Sealead)임
- ❖ 이번 항로 개설로 인천항과 자카르타를 잇는 정기항로는 기존 3개에서 4개로 확대 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주요 항만과의 해상 물류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됨

 - 이에 따라 인천항을 이용하는 수출입 기업들은 선박 확보 안정성 제고, 물류비 절감, 리드타임 단축 등 직접적인 물류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음
- ❖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에 따르면 이번 신규항로는 연간 약 4만TEU의 추가 물동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기항로 수는 역사상 최대인 총 71개 노선으로 확대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9.18.),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0898&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5.09.23.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0898&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5.09.23. 검색))

2 중국발 크루즈 ‘드림호’,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첫날 인천항 기항 예정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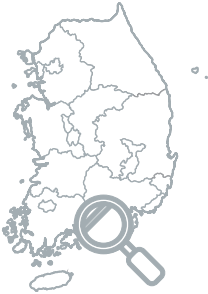
- 오는 9월 29일, 중국 텐진동방국제크루즈(天津东方国际邮轮) 소속의 7만 7천 톤급 크루즈선 ‘드림호(Dream)’가 인천항에 기항할 예정임
 - 이번 기항은 한국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첫날에 맞춰 이뤄지는 것으로, 무비자 정책 시행에 부응한 중국 선사의 첫 크루즈 운항 사례로 기록될 예정임
 - 해당 제도는 '25년 9월 29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에게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드림호’는 승객 정원 2,270명, 승무원 600명 규모의 중대형 크루즈로, 중국 텐진을 출발하여 인천항에 하루 기항한 뒤 다시 텐진으로 복귀하는 총 5일간의 일정
 - 특히 인천항에서 운항하는 '25년 전체 월드크루즈 30척 중 중국 도시를 직전 기항지로 둔 선박은 단 4척에 불과하며, 중국 선사가 직접 인천을 기항하는 것은 드림호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음
- 인천항만공사(IPA)는 드림호 입항일에 환영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중국 선사 및 현지 여행사 대상 포트세일즈 및 세일즈콜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임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5) 연합뉴스(2025.09.11.),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1041900065?input=1195m>(2025.09.23.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물류창고 화재, 7일 만에 초기 진화 완료⁶⁾

-  광양항 도이동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발생 7일 만인 9월 19일 오전 초기 진화를 완료함

 - 소방당국은 기존 소각 방식에서 질식소화 방식으로 진압 전략을 전환하면서 진화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고 설명함
 - 다만 흙더미 아래 일부 잔불이 남아 있어 완전 진화까지는 추가로 1~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 화재 원인은 알루미늄 드로스가 소화수와 반응하며 불길이 확대된 특수한 상황으로 분석됨
 - 광양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마스크 11만 장 보급, 긴급후송반 및 심리상담반 운영 등 시민 보호 대책을 시행함
-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미세먼지·휘발성 유기화합물·중금속 농도는 환경기준치 이하로 확인되었으며 건강 위해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이번 사태는 항만 내 특수 물질 보관·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으며, 향후 불법 폐기물 반입 및 관리 부실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요구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6) 광양뉴스(2025.09.19.), <https://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948>(2025.09.24. 검색)

2 7,846억 원 투입 'K-스마트항만' 구축 추진⁷⁾

❖ 광양항은 7,846억 원을 투입해 '29년까지 국내 최초의 '스마트항만'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광양항 3단계 2차 부두에 4선석 규모의 자동화 부두를 조성하며 자동화 안벽 크레인, 자동화 이송장비(AGV), 자동화 야드 크레인(ASC) 등을 도입해 하역·이송·장치 전 과정을 무인화할 계획임
- 모든 장비는 중앙 통제 시스템으로 연동돼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만 운영을 지원하게 됨
- 이를 통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가능한 첨단 항만 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 국산 기술 기반의 'K-스마트항만' 모델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항만 자동화 기술 생태계를 강화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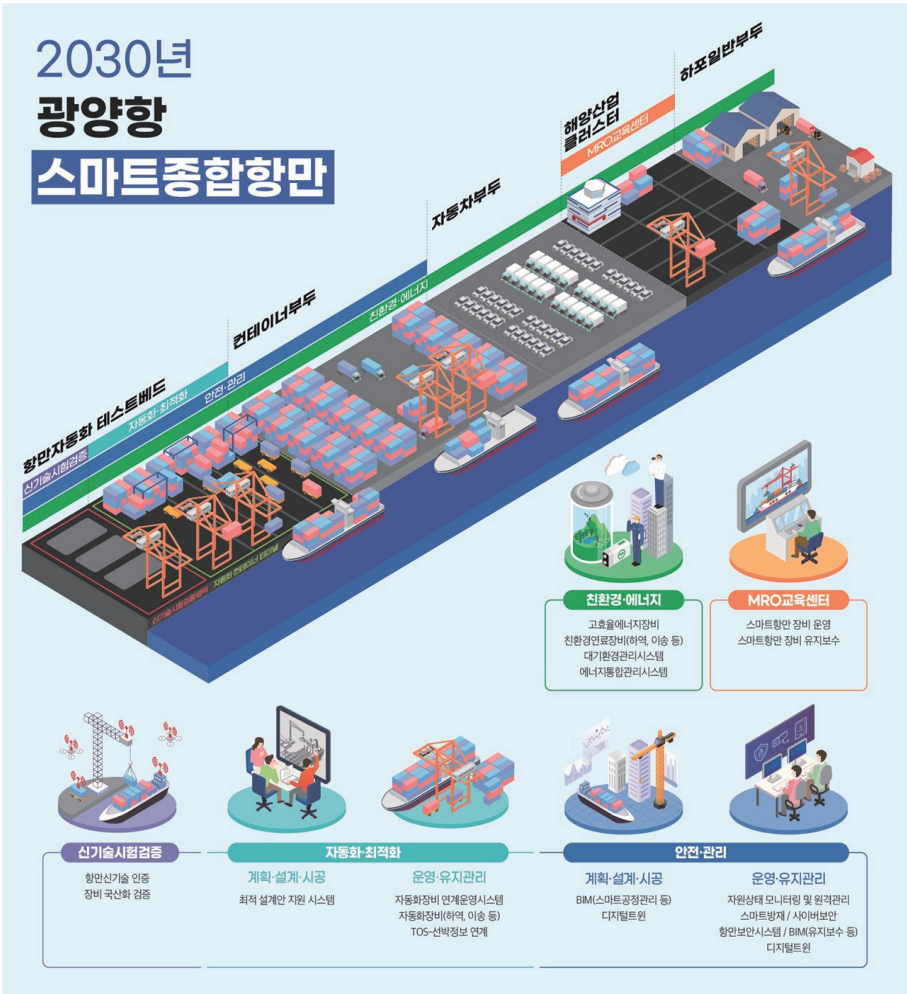
- 그동안 세계 스마트항만 시장은 일부 선진국 기술에 의존해 왔으나 광양항 테스트베드는 국산화 기술 개발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이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물동량 처리 능력과 운영 효율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운영비 절감 효과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됨

❖ 친환경 및 ESG 경영 요소를 반영한 지속가능 항만으로 전환함

- AMP(육상전원공급설비) 확대 설치를 통해 정박 선박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디젤 장비를 전동화하며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 도입할 계획임
- 또한 실시간 오염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 관리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시아 최고 수준의 친환경·고부가가치 복합항만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함

7) 오마이뉴스(2025.09.2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7573(2025.09.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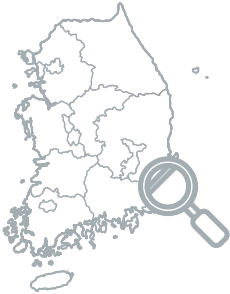
광양항 스마트항만
개념도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 울산항



철재 전용부두로 지정된
내해부두 전경

1 내해부두, 철재 전용부두 지정⁸⁾

GS엔텍이 사용하는 물양장인 내해부두가 해양수산부의 항만기본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철재 전용부두로 지정됨

- 내해부두는 그동안 물양장으로 지정되어 해당 부두에서 직수출이 불가능해 수출 시 화물부두로 이동 후, 수출할 수 있었음
- 이번 철재부두로 반영된 내해부두는 2,000DWT급 1개 선석이며, GS엔텍이 제작하는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용 모노파일의 수출을 지원하는 전용부두로 사용될 예정임
- GS엔텍은 해상풍력 기자재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약 3,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울산항만공사(UPA)는 항만 기반시설 및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임



자료: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9.07.),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5477>(2025.09.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8)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9.07.),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5477>(2025.09.23. 검색)

2 UPA, 해상풍력 간담회 개최⁹⁾

UPA는 9월 10일 해상풍력 관련 업계 동향 및 사업 추진 방향 공유와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는 현장 수요를 고려한 항만인프라 조성 및 운영 방향성 구체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들과 기자재 제작업체, 울산상공회의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유관기관의 책임자 및 실무자 약 40여 명이 참석함
- UPA는 민간 수요 및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개발 중인 항만인프라의 해상풍력 지원부두 활용 여부에 대해 구체화할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9)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9.10.),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idx=671&mid=0501010000&&idx=15483>(2025.09.23.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경기평택항만공사, 인도네시아 공략 포트세일즈 실시¹⁰⁾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9월 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웨스틴 호텔에서 세계 4위 인구 규모 약 2.9억 명의 동남아 최대 잠재시장 인도네시아 신규 물동량 유치를 위한 평택항 포트세일즈를 실시함

 -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비롯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컨테이너 터미널(한진평택 컨테이너터미널, 평택동방아이포트), 벌크 터미널(평택항만), 화인통상 등 평택항 유관기관·민간기업 대표 및 임직원 16명이 공동 참여함
 - MAERSK 등 인도네시아 현지 선사, 포워더, 화주 등 해운항만물류 관계자 약 9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임
- 평택항의 컨테이너, 자동차, LNG 등 다양한 화물 처리 능력과 수도권·중부권 인접성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 물동량의 최적 항만으로서의 특징점을 소개함

 -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평택항이 수도권과 중부권에 가까이 위치한 대한민국 거점 항만으로 콜드체인 화물 등 다양한 인도네시아 화물의 물류비와 이동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 항만이라고 강조함
 - 평택항 유관기관 및 컨테이너·벌크 터미널 운영사와 함께 인도네시아 화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 평택항 대표단은 9월 4일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 수라바야를 방문하여 추가 포트세일즈를 실시할 예정임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선택과 집중 항만 마케팅 전략을 기반으로 동남아 최대 잠재시장 인도네시아 시장을 장기적으로 공략해 나갈 계획임
 - 경기도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활용하여 평택항 신규항로개설 및 물동량 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0) 경기평택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9.03.), <https://www.gppc.or.kr/cms/article/view.do?postNo=150&pageId=K006003001>(2025.09.24. 검색)

6) 포항항



1 포항~울릉 도동항로 대체 여객선 투입

경북 포항~울릉을 오가는 정기여객선 ‘엘도라도호’가 기관 고장으로 지난 4월 운항을 중단한 지 약 4개월 만에, 8월 29일부터 대체 여객선 ‘썬라이즈호’가 투입됨

- 엘도라도호는 지난 4월 4일 엔진 4기 중 1기에 고장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되었으며, 선사 측은 외국에서 엔진 부속을 주문 제작해야 하는 탓에 내년 3월쯤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함
- 대체 수송편 마련을 위해 선사 측은 8월 2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관계자 등과 함께 승선해 안전성, 속도, 운항 상태 등을 점검하는 시범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최종 확인 후 29일부터 본격 운항을 시작함¹¹⁾
- 해당 선박은 총 590톤 규모로 여객 442명이 승선할 수 있으며, 매일 포항에서 오전 9시 50분, 울릉에서 오후 2시에 출항함

그러나 기존 정기여객선 ‘엘도라도호(3,158톤, 970명)’ 대비 소형 선박이 투입되면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커지고 있음¹²⁾

-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주민 이동과 관광객 수송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이에 수리 전까지 엘도라도호 운항을 허용하도록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규정에 따라 엔진 4기 중 1기만 고장 나도 운항이 금지돼,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선박조차 예외 없이 제한받는 상황임
- 울릉군 관계자는 규제 불합리성으로 주민 이동권 제한, 선사 경영 악화, 관광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률적 규제 완화, 탄력적 운영 체계, 유연한 허가제도 도입 등을 건의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1) 헤럴드경제(2025.08.26.),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62399?ref=naver\(2025.09.23. 검색\)](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62399?ref=naver(2025.09.23. 검색))

12) 매일신문(2025.09.15.),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91410405478063\(2025.09.23. 검색\)](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91410405478063(2025.09.23.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위험물 취급 종사자 간담회 개최¹³⁾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5년 9월 2일 동해청 대회의실에서 동해·묵호항 위험물 취급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무역항 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논의함
- 위험물은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거나 인체·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의미하며 동해·묵호항에서는 황산과 석유제품이 대표적으로 취급됨
- '24년 기준 황산 약 8만4천 톤, 석유제품 약 84만 9천 톤이 반출입된 것으로 집계됨
- 이번 간담회에서는 관리 지침 공유와 사고 사례 소개를 통해 실질적 안전대책을 모색함
- 대한송유관공사 강원지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가 참석해 무역항 위험물 중점관리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관련 사고 사례를 발표함
- 참석자들은 항만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와 함께 항만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캠페인도 병행하여 진행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3) 해사신문(2025.09.02.),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269>(2025.09.24. 검색)

8) 목포항



① 목포시, 삽진항 국가어항 기본설계비 9억원 정부 예산 반영¹⁴⁾

-  전남 목포시 삽진항 국가어항 신규지정을 위한 기본설계비 9억 원이 '26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가어항 개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됨

 - 현재 목포항은 어선 접안시설 부족으로 선박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기상특보 시 선박이 8중 이상 겹쳐 접안되어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형사고 위험이 커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삽진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되면 어선 수용 능력 확대, 안전사고 예방, 체계적인 항만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삽진항 개발로 목포항의 내항과 복항 기능 재편이 기대됨

 - 어선 일부를 삽진항으로 분산 수용해 내항은 여객선·카페리·마리나·친수공간 중심으로, 복항은 소형어선 및 해경 경비함 전용부두로 특화하여 항만 기능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됨
 -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1·2단계에 약 968억 원 이상의 국비가 우선 투자되고 3단계 사업을 통해 추가 국비가 투입될 예정임
-  삽진항 조성으로 총 116,824㎡의 배후부지가 확보되어 어선 계류 기본시설은 물론 냉장·냉동시설, 어구 건조·야적장, 창고 등 필수 어업 인프라를 갖추게 됨

 - 유통·관광·레저·휴게시설까지 유치해 수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임
 - 인근 대양산단의 수산식품 수출단지, 어묵공장, 김 산업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됨
-  삽진항은 '24년 해양수산부 예비대상항 공모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확보가 목포시가 수산업을 넘어 관광·해양레저·해상교통안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국가어항으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4) 스포츠동아(2025.09.01.), <https://sports.donga.com/region/article/all/20250901/132293652/1/2025.09.24>. 검색)

9) 대산항



1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청), 하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지도·단속 실시¹⁵⁾

-  해상안전 특별 지도·단속은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대산항 수상구역 및 인근 수역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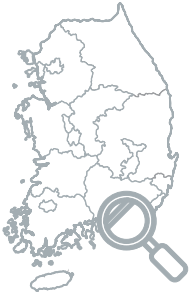
 - 특별 단속은 ‘불법 어로행위’, ‘허가(신고) 없이 진행되는 선박 수리·작업’, ‘안전관리 미흡 또는 무허가 운항’, ‘수상구역 내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해상 장애물 설치 등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함
 - 상반기 단속은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불법 설치 어구에 대한 경고문 부착 1건, 수상구역 내 해상 장애물 제거 5건 등 총 6건의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음
 - '24년 전국 무역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987건으로 충남 서해안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약 14%인 412건을 차지했으며, 주요 원인은 ‘선박 운항 부주의(41%)’, ‘기관 고장(27%)’, ‘불법 어로·항로 침범(16%)’ 등이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5) 중도일보(2025.09.23.),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913010004954\(2025.09.23. 검색\)](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0913010004954(2025.09.23. 검색))

10) 마산항



1 중량화물·자동차 특화항만으로 육성 추진¹⁶⁾

-  마산항은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철강·기계 등 중량화물과 자동차 물동량에 특화된 항만으로 발전시키고 동남권 자동차 환적 허브로 도약하는 전략을 추진 중임

 - 마산항은 3·4·5부두와 가포신항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물동량 1,380만 톤 중 중량 화물이 75%를 차지함
 - 가포신항 자동차 물동량은 '22년 17만6천 대에서 '23년 36만2천 대로 증가했고 올해는 40만 대 돌파가 확실시됨
 - 한국GM 창원공장 수출 화물과 현대·기아차,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의 환적 화물이 집중되면서 새로운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가포신항을 자동차 환적 허브로 육성하고 방산기자재 등 신규 화물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해 방산·원전·해상풍력·수소터빈 등에서 발생하는 신규 화물이 마산항을 통해 수출될 전망임
 - 특히 국제정세 불안으로 늘어난 방산기자재 수출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항만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단지와의 연계도 확대할 계획임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집행력을 제고할 전망임

 - 해수부 본부와의 근접성이 높아지면서 현장 목소리를 신속히 전달하고 정책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마산해수청과 본청 간 인사교류 확대를 통해 기획·집행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6) 국제신문(2025.08.31.),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50901.22020006022\(2025.09.25. 검색\)](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50901.22020006022(2025.09.25.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8월 수출 증가율,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¹⁷⁾

- 중국의 8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에 그쳐 전월 증가율인 7.2%와 비교해 크게 둔화함
 - 對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3% 급감했으며, 이는 미국의 제3국 경유 우회 수출 단속 강화와 지난해 선적 앞당기기 효과 소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중국 수출업체들은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 경유 방식을 활용해 왔으나, 미국은 7월부터 제3국 환적으로 판정된 물량에 4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미국 무역정책 압박 속에서 중국은 동남아시아, EU,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는 추세임
 - 8월 기준 對EU 수출은 10.4%, 아세안 수출은 22.5%, 아프리카 수출은 약 26% 증가함
 -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 늘어나며 6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확대로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함
- 한편, 경제학자들은 4분기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을 발표할지 주목하고 있으나, 정부는 재정지원보다는 산업 과잉설비 억제에 우선시하고 있어 내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7) CNBC(2025.09.07.), <https://www.cnbc.com/2025/09/08/china-exports-growth-in-august-drops-missing-expectations-.html>(2025.09.23. 검색)

2

중국 항만, CPPI(Container Port Performance Index) 압도적
우위¹⁸⁾

-  세계은행(World Bank)과 S&P Global이 매년 발표하는 CPPI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기준 상위 20개 항만 중 10곳이 중국에 위치함
- '24년은 홍해 위기, 파나마운하 가뭄 등으로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성과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해였으나, 효율성 개선 정도는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 지역별로는 동아시아 항만들이 성과를 개선하며 순위를 주도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 항만이 압도적 우위를 기록함
 - 남아시아 항만들도 지난 1년간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였으며, 북미와 유럽 항만은 지난해와 유사한 점수를 유지하며 회복력을 입증함
 - 소득 수준별로는 고소득 국가의 주요 항만만 개선을 이룬 것이 아니며, 다카르·자와할랄 네루·메르신·포트사이드·포소르하 등 개발도상국 항만들도 '20~'24년 사이 점수와 순위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달성함
 - 세계은행 관계자는 여러 충격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항만들이 적응과 개선을 통해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으며, 더 나은 계획·기술·물류 체인 전반의 협력을 통해 항만이 효율성에서 도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한편, 9월 23일 발표된 CPPI 보고서는 전 세계 403개 컨테이너 항만을 대상으로 175,000회 이상의 선박 입항과 2억 4,700만 건의 컨테이너 이동을 포함하는 데이터세트를 활용해 항만 내 선박 체류 시간을 중점적으로 분석함

The world's top 10 most productive boxports according to the World Bank

Rank	Port	Economy	CPPI
1	Yangshan	China	146.3
2	Fughou	China	139.2
3	Port Said	Egypt, Arab Rep.	137.4
4	Dalian	China	136.5
5	Tanger-Med	Morocco	135.8
6	Mawan	China	133.0
7	Cai Mep	Viet Nam	132.5
8	Guangghou	China	130.2
9	Chiwan	China	129.5
10	Ningbo	China	127.9

자료: Splash247, [https://splash247.com/china-dominates-annual-port-productivity-survey/\(2025.09.23. 검색\)](https://splash247.com/china-dominates-annual-port-productivity-survey/(2025.09.23. 검색))

2024년 기준 CPPI 상위
10위 항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8) Splash247(2025.09.23.), [https://splash247.com/china-dominates-annual-port-productivity-survey/\(2025.09.23. 검색\)](https://splash247.com/china-dominates-annual-port-productivity-survey/(2025.09.23. 검색))

2) 아시아



1 싱가포르항, 통합 공급망 허브 구축 본격화¹⁹⁾

- PSA Singapore는 중국 국영 선사 코스코(COSCO, China Ocean Shipping Company)와 공동으로 '27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PSA 공급망 허브(Tuas Supply Chain Hub)' 개발에 착수함

 - 해당 허브는 투아스항(Tuas Port)과 인접한 자유무역지대(FTZ, Free Trade Zone) 내에 위치하며, 고부가가치 화물의 저장, 분배, 콜드체인, 위험물 처리 기능까지 포함하는 아시아 내 최초의 통합 물류 플랫폼으로 조성될 계획임
- 이번 협력은 코스코 해운지주(COSCO Shipping Holdings) 등 3개 회사와 PSA가 '25년 9월 15일 체결한 양해각서에 기반함

 - PSA는 이번 협력이 단순 컨테이너 처리 기능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걸친 서비스 확대로 이어지는 전략적 진전이라고 밝힘
- 코스코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아시아 역내(Intra-Asia) 항로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

 - '25년 상반기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은 1,328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함
 - PSA는 이와 같은 해운망과 자사의 스마트항만 생태계를 연계해, 동남아 및 아시아 전역 고객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9) The Straits Times(2025.09.15.), <https://www.straitstimes.com/business/psa-singapore-inks-tuas-port-warehousing-and-logistics-deal-with-chinas-shipping-giant> (2025.09.23. 검색)

2 미쓰비시 상사, 해상풍력 선도 사업 철수 발표²⁰⁾

미쓰비시 상사(Mitsubishi Corporation)는 치바현과 아키타현 해역에서 추진 중이던 3개 해상풍력발전 건설 계획에서 전면 철수한다고 발표함

- 이는 일본 정부가 재생에너지 주력화를 목표로 지정한 국가공모 사업으로, '21년 입찰을 통해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였음
- 하지만 자재비 급등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철수의 주요 배경임
- 미쓰비시 측은 “거액을 투자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함

사업 철수의 핵심 원인은 풍력터빈 가격의 급등으로 밝힘

- 미쓰비시 상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해상풍력 핵심 기자재인 풍차 제조사는 유럽계 3개사로 사실상 독점적 공급 구조이며, 전쟁·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았다”고 설명함
- 전기료 수입에 있어서도 시장가격 보조제도로의 전환도 검토했으나, 판매단가를 2배로 설정해도 30년 사업 기간 내 사업비 회수가 어려운 구조로 분석됨

해당 사업은 일본 국토교통성이 '20년부터 노시로항(能代港), 아키타항(秋田港) 등을 해상풍력 전용 항만(Base Port)으로 지정하고, 설치 및 유지보수 기반 조성을 지원한 대표적 민관협력 모델이었음

- 미쓰비시의 철수는 지자체 및 지역 기업의 선제 투자에도 타격을 주었으며, 향후 투자심리 위축과 프로젝트 지연 우려가 제기됨
- 아울러 이번 사태는 민간 수익성 구조의 불안정성과 유럽 기자재 의존 구조가 동시에 노출된 사례로 평가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0) The Japan Maritime Daily(2025.08.29.), [https://www.jmd.co.jp/article.php?no=308205\(2025.09.23. 검색\)](https://www.jmd.co.jp/article.php?no=308205(2025.09.23. 검색))

3 PSA, 13억 달러 투자해 인도 뭄바이터미널 확장 추진²¹⁾

-  싱가포르 PSA 인터내셔널이 인도 뭄바이 자와할랄네루항(JNPA)에 위치한 PSA 뭄바이 터미널의 2단계 확장 프로젝트에 1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함
 - 이번 투자는 싱가포르가 인도에 진행한 최대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로 평가되며, 인도 최대 컨테이너터미널로의 도약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됨
 - 확장된 터미널은 총 6개의 선석과 2,000m 길이의 연속 부두를 갖추게 되며, 연간 처리 능력은 기존 대비 두 배인 480만 TEU로 늘어날 전망이다
-  웅 김 풍 PSA 인터내셔널 CEO는 이번 프로젝트가 인도 터미널에 용량, 연결성, 지속 가능성을 결합해 인도의 무역 야망을 실현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힘
 - PSA와 별도로 DP World도 최근 5억 1,000만 달러를 투자해 구자라트 지역에 연간 220만 TEU 규모의 새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안을 발표함
 - 인도는 '22년부터 '24년까지 각각 9.7%, 7.6%, 9.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후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4-'25 회계연도 인도의 화물 처리량이 전년 대비 4.3% 증가한 8억 1,900만 톤을 기록했으며, 컨테이너 처리량은 10% 증가하며 10년간 누적 70% 성장을 나타냄
 - 인도 항만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인도가 아시아 물류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줌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1) 해양통신(2025.09.05.), [https://oceanpress.co.kr/news/article.html?no=27548\(2025.09.24. 검색\)](https://oceanpress.co.kr/news/article.html?no=27548(2025.09.24. 검색))

4 MSC, 인도 북부-중동 신규 항로에 사우디 담맘항 추가 운항²²⁾

-  사우디항만공단이 MSC의 새로운 ‘북부 인도-중동’ 해운서비스가 담맘 킹 압둘라지즈항에 추가된다고 발표함

 - 이번 신규 서비스는 담맘 킹 압둘라지즈항을 인도의 문드라, 나바세바, 하지라항과 오만의 소하르, UAE의 아부다비와 연결하며, 최대 4,000TEU의 처리 능력을 갖추
 - 사우디항만공단은 이를 통해 왕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이번 조치는 사우디항만공단이 글로벌 성과 지표에서 왕국의 순위를 높이고 담맘 킹 압둘라지즈항의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임

 - 사우디항만공단은 국가 수출 증진을 지원하여 왕국을 글로벌 물류 허브이자 3개 대륙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확립하려는 국가 교통물류 전략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설명함
 - 담맘 킹 압둘라지즈항은 43개의 선석과 최대 1억 500만 톤의 화물 및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갖춘 완전히 통합된 인프라와 물류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담맘 킹 압둘라지즈항은 왕국을 글로벌 경제와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주요 국제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완전히 갖춰진 통합 인프라와 물류 시설을 제공함

 - 이번 MSC 항로 추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과 인도 간 물류 네트워크에서 핵심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2) indiashippingnews(2025.08.26.), <https://indiashippingnews.com/mscs-new-north-india-to-middle-east-shipping-route-adding-dammam/>(2025.09.24. 검색)

3) 미주



1 부산항만공사(BPA), LA·LB항 물류센터 풀필먼트 서비스 확대²³⁾

- 🏢 BPA는 미국 LA·LB항 배후 물류센터에 풀필먼트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풀필먼트는 보관·재고관리부터 포장·배송까지 물류 전 과정을 처리하는 서비스로,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라 수요가 커지고 있음
 - BPA는 지난해 주성씨앤에어와 합작법인을 세워 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올해 4월 설비 설치와 시험가동을 마치고 현재 7개 국내 기업이 이용하고 있음
- 🏢 서비스 확대로 K·뷰티·K·컬처 등 다품종 소량 화물의 미국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 센터 내에서 상품 보관·포장·배송이 일괄 처리되며, 업종별 특성에 맞춘 통관 대행과 운송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 예정임
 - BPA는 안정적인 수출 공급망 확보와 기업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3) 국제신문(2025.09.15.),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50916.22011004575\(2025.09.23. 검색\)](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50916.22011004575(2025.09.23. 검색))

4) 유럽



1 우크라이나, 초르노모르스크항 투자 프로젝트 착수 추진²⁴⁾

-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 전면전 상황에서 초르노모르스크항 제1터미널과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을 위한 국제 경쟁입찰 절차에 착수함

 - 이번 사업은 전쟁 이후 항만 분야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공공-민간 협력(PPP) 프로젝트로 독립 이래 최대 규모의 항만 개발 사업임
 - 올렉시이 쿨레바 재건 부총리는 국제금융공사(IFC),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글로벌 컨설턴트가 참여해 입찰 절차를 준비 중이며, 이미 세계 주요 항만 운영사와 투자자 40여 곳이 관심을 보였다고 밝힘
-  이번 사업은 초르노모르스크항의 6개 심수부두와 전반적 인프라 현대화를 핵심으로 하며, 수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예상됨

 - 항만은 국유 자산으로 유지되며, 민간 투자자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자본과 전문성을 투입해 인프라 현대화와 운영을 담당하게 됨
 -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향후 40년간 11억 달러 이상의 세수 확보와 1,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는 3년 내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을 25만TEU로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전쟁 전 수준인 50만TEU 이상의 물동량 회복을 목표로 함

 - 당국은 초르노모르스크항을 유럽 주요 허브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임
 - 한편 러시아는 9월 2일 이즈마일 지역 항만 시설과 8월 31일 초르노모르스크항을 드론으로 공격하는 등 우크라이나 항만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음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4) 코리아쉬핑가제트(2025.09.15.),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5413/\(2025.09.27. 검색\)](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5413/(2025.09.27. 검색))

2 독일 함부르크항, '25년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 420만TEU로 9% 증가²⁵⁾

- 독일 함부르크항이 '25년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 420만TEU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380만 TEU) 대비 9.3% 증가한 안정적 성장세를 보임
 - 수입 물동량은 11.6%, 수출 물동량은 6.9% 증가했으며, 환적 물동량은 160만TEU로 전년 대비 23.8% 대폭 증가함
 - 극동아시아와 발트해 항로의 교역량 증가와 환적 물동량 증가가 성장을 뒷받침했음
- 아시아 지역에서는 극동아시아가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180만TEU를 처리했으며, 말레이시아는 93.2% 폭증한 16만9,000TEU를 기록함
 - 새로운 해운동맹 출범으로 환적 경로가 바뀌면서 말레이시아 항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됨
 - 인도는 41.6% 증가한 13만7,000TEU, 중국은 10.5% 증가한 120만TEU의 물동량을 기록함
- 발트해 지역에서는 덴마크(9만8,000TEU), 핀란드(12만5,000TEU), 폴란드(18만2,000TEU)가 각각 36%, 20.1%, 28.8%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장을 보임
 - 반면 미국은 유일하게 물동량이 19.3% 감소한 27만 5,000TEU를 처리하여 미국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동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됨
 - 함부르크항과 지중해·중동·극동아시아·인도를 연결하는 신규 정기선 서비스 증가와 희망봉 우회 항로에 대한 선사들의 적응이 긍정적 영향을 미침
- 악셀 마틴 함부르크항만청 마케팅대표는 함부르크항이 신규 정기선 서비스와 선사들의 조정으로 혜택을 누리며 경쟁 항만 대비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5) 코리아쉬핑가제트(2025.08.29.),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num=145290(2025.09.27.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시드니, 제3 크루즈 항만 후보지로 포트캠블라항 부상²⁶⁾

- 시드니 항만의 크루즈 선박 수용 한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포트캠블라항이 제3 크루즈 항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접근성·기존 항만 인프라·관광자원 측면에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음

 - 시드니는 현재 서큘라키 해외여객터미널 1선석과 화이트베이 2선석만 운영 중이며 대형 선박은 항만 진입에 제약이 있어 장기간 대체 부지 논의가 이어져 왔음
 - 가든아일랜드, 보터니만(아라베이·몰리눅스포인트) 등이 후보였으나 군사시설 문제와 지역사회 반발로 무산됨
 - 이로 인해 시드니항 크루즈 수용 능력 확대가 지연되면서 업계는 포트캠블라에 현실적 대안을 기대하고 있음
- 울런공시와 크루즈업계는 포트캠블라를 시드니 제3의 크루즈 항만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력해 장기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 울런공시의 ‘크루즈 울런공 태스크포스’는 ’33년까지 NSW 크루즈 승객 수요가 연간 2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포트캠블라항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힘
 - 항만은 이미 대형 상업선박이 기항하는 시설을 보유해 제한적 투자로 크루즈 수용이 가능하며 도로·철도 접근성 및 공항 연계성이 장점으로 강조됨
 - 호주크루즈협회(ACA)는 공식 지지를 표명했으며 국제크루즈협회(CLIA)는 특정 후보지를 지지하지는 않으나 계획 마련 자체에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냄
- 포트캠블라는 인프라와 지역 관광자원을 결합해 시드니 크루즈 수요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항만은 시드니 도심에서 9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셀하버공항·시드니공항·웨스턴시드니공항·캔버라공항과 연계 가능성이 있음
 - 지역은 해안 드라이브, 자연전망대, 야생동물 체험, 음식·와인 관광, 원주민 문화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보유해 크루즈 관광객에게 새로운 매력을 제공할 수 있음
 - NSW 주정부는 현재 포트캠블라의 제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6) Cruisecritic(2025.09.05.), <https://www.cruisecritic.com/news/sydney-third-cruise-port-wollongong>(2025.09.25. 검색)

6) 아프리카



1 Liebherr-Transnet, 남아프리카공화국 항만장비 10년 장기 파트너십 체결²⁷⁾

- Liebherr와 남아공 Transnet Port Terminals가 STS·RTG·RMG·LHM 등 핵심 장비의 성능·신뢰성 강화를 위한 10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년 자산관리 프로그램과 결합한 대규모 공급·유지보수 체계를 가동함**
 - 계약에는 선석 크레인(STS) 4기 신규 발주가 포함되며 더반항에 투입 예정임
 - RTG 48기는 더반·케이프타운 터미널에 배치되며 일부는 이미 운용 중이고 추가 물량도 순차 인도될 예정임
 - 인터모달 운영용 RMG와 현장 유연성을 높이는 LHM도 다수 포함됨
 - 장비 공급과 함께 장기 유지보수·수리·부품 공급을 Liebherr가 총괄하며 더반에 교육 기능을 갖춘 신규 컴피턴스·디스트리뷰션 센터를 구축함
 - 케이프타운 고객지원 체계는 24시간 대응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됨
- 장기적 장비 표준화와 현지 서비스망 확대로 생산성·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됨**
 - 10년 서비스 계약과 20년 자산관리 결합은 장비 수명주기 최적화와 예측정비 정착에 유리함
 - 현지 허브와 교육시설 확충은 부품 리드타임 단축과 기술 인력 내재화로 가동률을 높임
 - 대형 STS와 대수 물량 RTG 투입은 병목이 큰 컨테이너 허브(더반·케이프타운)의 처리능력 확장에 기여함
 - 결과적으로 항만 물류 효율을 높이고 장기 운영비를 낮추어 남아공 항만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 단일 공급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장비 기술·서비스 표준을 통일하고 항만 운영 리스크를 분산함**
 - 브랜드·모델 통일은 부품 호환성과 정비 표준화에 유리하며 장비 운용 데이터 축적을 통한 성능 개선이 용이함
 - 현지 24시간 지원과 교육 체계는 장애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품질 표준의 현장 정착을 가속함
 - 신규 장비의 순차 인도로 단기 처리능력 증대와 중장기 자산 성능 안정화가 동시에 추진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7) PortTechnology(2025.09.05.),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liebherr-signs-long-term-port-equipment-deal-with-transnet/\(2025.09.25. 검색\)](https://www.porttechnology.org/news/liebherr-signs-long-term-port-equipment-deal-with-transnet/(2025.09.25.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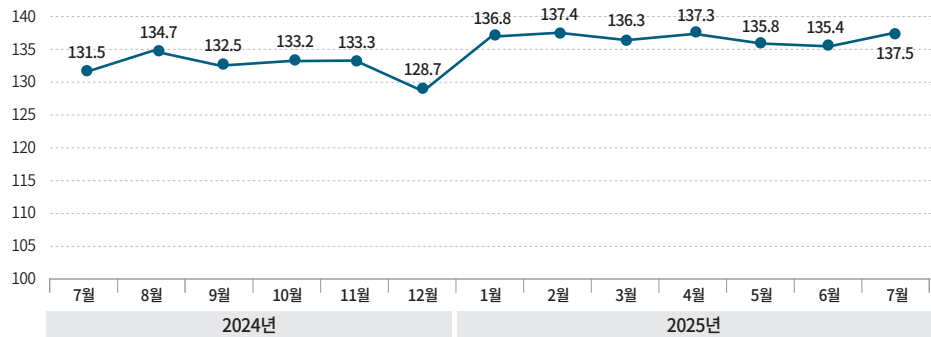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1'25년 7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1.6% 증가²⁸⁾

-  '25년 7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137.5p를 기록함
- 미국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컨테이너 교역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세로 전환됨
 -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150.6p로 전월 대비 1.3%,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함
 - 유럽 항만의 처리량은 118.4p로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7.1% 증가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31.5	134.7	132.5	133.2	133.3	128.7	136.8	137.4	136.3	137.3	135.8	135.4	137.5	1.6	4.6
China Index	148.0	151.7	147.7	148.2	144.1	135.9	153.1	155.3	151.4	153.6	150.1	148.7	150.6	1.3	1.7
North Range Index	110.6	114.4	112.7	115.1	115.3	108.7	115.2	112.8	114.7	117.2	118.7	117.5	118.4	0.8	7.1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725\(2025.09.23](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725(2025.09.23)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8) ISL(2025.08.28.), [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725\(2025.09.23](https://www.isl.org/index.php/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725(2025.09.23) 검색)

2 로이드리스트(Lloyd's List), '24년 기준 컨테이너 처리량 Top 100 발표²⁹⁾

-  로이드리스트의 'One Hundred Ports 2025'에 따르면 '24년은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도 두드러진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함
 - '24년 전 세계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7억 4,360만 TEU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8.1% 증가해 최근 몇 년간의 침체를 반전시킨 결과임
 - 아시아는 여전히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했으며, 중국 항만만으로도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40% 이상을 차지함
 - 상위 10위 항만 중 중국 항만이 6곳을 차지했고, 싱가포르항이 2위, 부산항이 7위, 두바이항이 9위, 포트클랑항이 10위를 기록함
 - 북미 항만, 특히 미국은 견조한 소비 수요와 미·중 무역 긴장에 따른 전략적 재고 보충 효과로 뚜렷한 성장을 보였음
 - 유럽 항만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 속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인도·베트남·튀르키예 등 신흥시장은 공급망 재편과 역내 무역 협정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감
-  전반적으로 '24년은 컨테이너 물류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갈수록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 속에서 적응력과 전략적 재조정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9) Lloyd's List, <https://www.lloydslist.com/one-hundred-container-ports-2025>(2025.09.23. 검색)

2) 양곡



1 '25년 8월 기준 주요 곡물 가격 전반적 하락세³⁰⁾

-  밀 가격은 187달러/톤으로, 전월(198달러) 대비 5.8% 하락. 전년 동월(194달러) 대비로는 3.5% 낮은 수준을 기록함

 - 대두는 370달러/톤으로, 전월(371달러) 대비 0.4% 하락. 전년 동월(362달러)과 비교할 경우 2.1% 상승함
 - 옥수수는 151달러/톤으로, 전월(160달러) 대비 5.5% 하락. 전년 동월(148달러) 대비로는 1.8% 상승함
-  대두의 수입단가는 560달러/톤으로, 전월(529달러) 대비 5.8% 상승하며 비교적 뚜렷한 상승세를 보임

 - 다만, 전년 동월(624달러) 대비 10.3% 하락하여 작년 대비 저가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25년 2월 이후 3개월간 낙폭 이후 6월 반등세 전환이 확인됨
-  옥수수 수입단가는 258달러/톤으로, 전월(250달러) 대비 2.9% 상승, 전년 동월(256달러) 대비 0.5% 증가하며 유일하게 전년 동월 대비 상승한 곡물임

 - '25년 들어 꾸준히 240~250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다, 6월 들어 다시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냄
-  한편, 미국 농무부(USDA)가 '25년 8월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보고서(WASDE)에 따르면, 2025/26년 세계 곡물 생산은 15억 7,200만 톤으로, 전년보다 2,490만 톤 증가함³¹⁾

 - 미국의 생산 확대로 총공급은 확대되었으나, 중국·브라질·아르헨티나의 생산은 일부 하향 조정됨
 - 소비는 동남아 국가 중심으로 감소하며 소폭 축소되었고, 전 세계 교역량은 2억 1,350만 톤으로 미세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기말재고는 전월 대비 140만 톤 감소한 2억 6,010만 톤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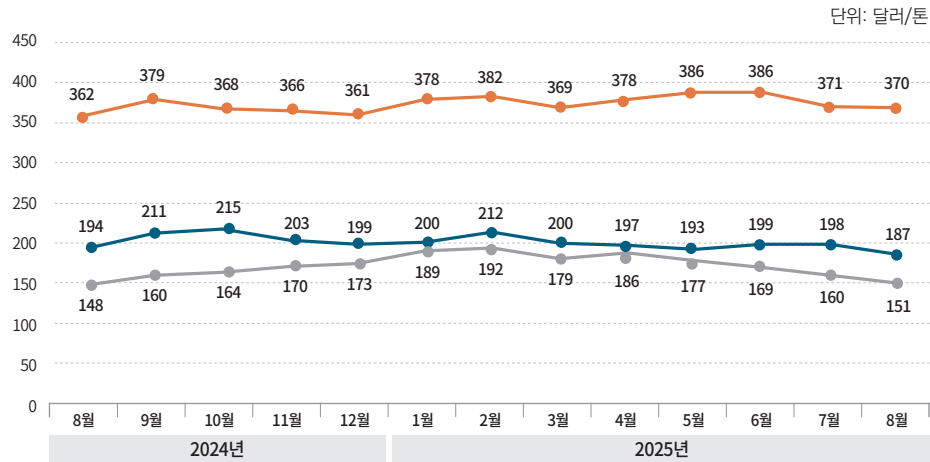
3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 가격동향(2025.08.30.), [https://www.krei.re.kr/grain/page/242\(2025.09.23. 검색\)](https://www.krei.re.kr/grain/page/242(2025.09.23. 검색))

31) USDA(2025.08.12.), [https://www.usda.gov/oce/commodity/wasde/wasde0825.pdf\(2025.09.23. 검색\)](https://www.usda.gov/oce/commodity/wasde/wasde0825.pdf(2025.09.23.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세계곡물 가격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세계곡물 가격동향

(단위: 달러/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194	211	215	203	199	200	212	200	197	193	199	198	187	-5.8	-3.5
대두	362	379	368	366	361	378	382	369	378	386	386	371	370	-0.4	2.1
옥수수	148	160	164	170	173	189	192	179	186	177	169	160	151	-5.5	1.8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중국, 아르헨티나산 대두 수입량 확대 전망³²⁾

-  중국 바이어들이 아르헨티나의 수출세 면제 발표 직후, 아르헨티나산 대두 최소 10건(최대 15건)의 화물 계약을 체결함

 - 이는 '25년 11월 선적 예정의 파나마스급 물량으로, 시카고 선물시장(CBOT) 11월물 대두 대비 부셸(bushel)당 2.15~2.30달러 프리미엄에 거래됨
 - 해당 계약은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뤄졌으며, 전통적으로 미국이 우위를 점하던 4분기 중국 대두 시장에 아르헨티나가 진입한 사례임
-  아르헨티나는 10월까지 혹은 수출 누계가 70억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수출세를 면제할 계획이며, 기존에는 26%의 수출세가 부과되고 있었음

 - 이 조치는 중국 내 대두박(soymeal) 및 대두유(soybean oil) 선물가격을 3.5% 하락시키는 등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야기함
-  중국은 '25년 5~8월 사이 대두 수입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4분기 공급 불안정에 대비해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충한 상태임

 - 중국은 현재까지 미국산 대두를 가을 수확분 기준으로 한 건도 수입하지 않은 상황이며, 9월~11월 사이 수입 계약의 대부분은 남미(브라질)산으로 채워진 상태임
 - 향후 미국-중국 무역 협상 결과와 아르헨티나산 대두 실제 도착 여부가 4분기 및 '26년 초 중국의 대두 수입 시장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2) Reuters(2025.09.23.),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chinese-buyers-snap-up-argentine-soybeans-after-tax-cut-hurting-us-farmers-2025-09-23/> (2025.09.23.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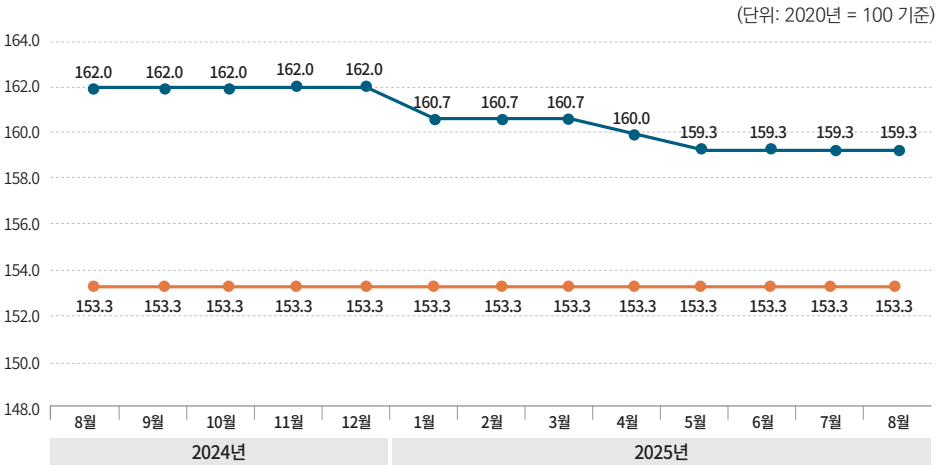


1 '25년 8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전월과 동일

- '25년 8월 포틀랜드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59.3p를 기록하였으며 고로 시멘트도 전월과 동일한 153.3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지난 12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로 시멘트는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2.0	162.0	162.0	162.0	162.0	160.7	160.7	160.7	160.0	159.3	159.3	159.3	159.3	0.0	-1.7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f2\(2025.09.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f2(2025.09.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시멘트 내수 35년 만에 최악 돌파구 난망³³⁾

-  건설경기 침체로 '25년 상반기 내수 출하가 급감해 연간 4천만 톤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국면이며 업계 전반의 매출·수익성 악화와 환경규제 대응 투자 부담이 겹치며 단기 반등 모멘텀이 제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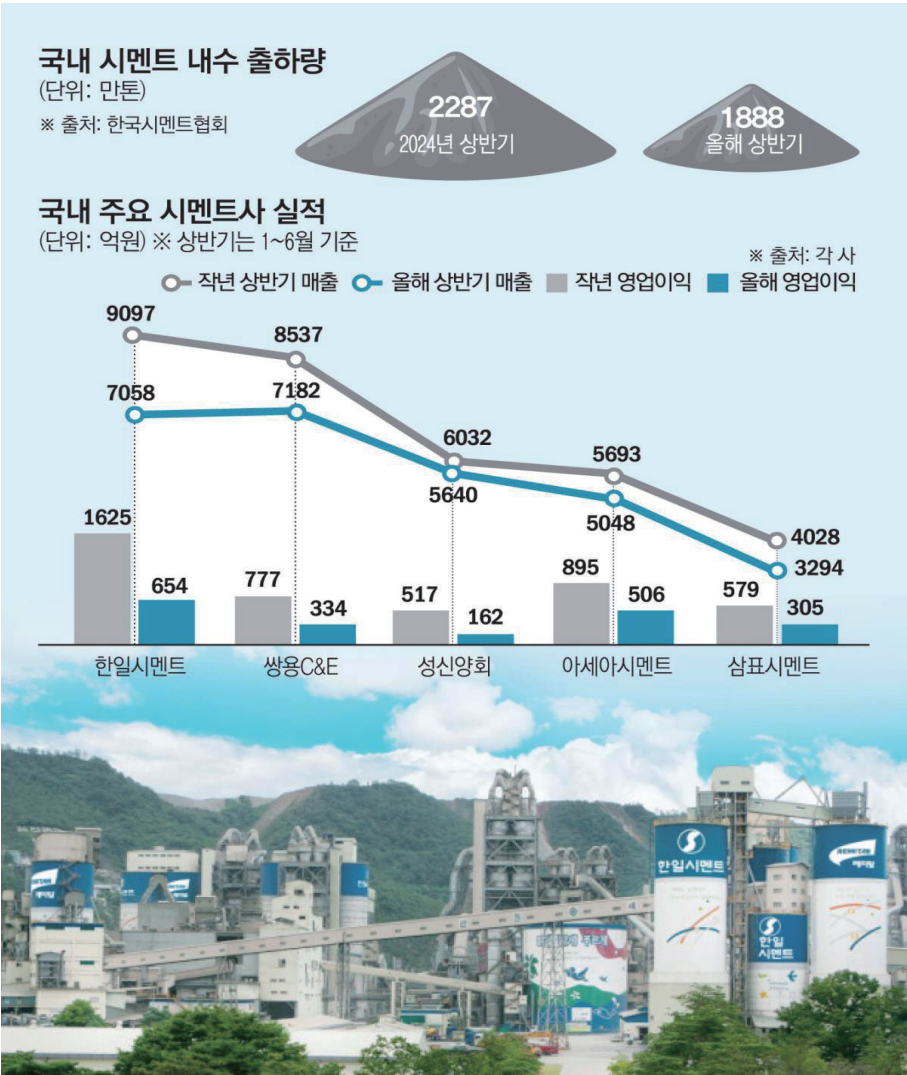
 - '25년 상반기 내수 출하 1,888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하여 상반기 기준 '92년 이후 처음으로 2천만 톤을 하회한 수준임
 - IMF 외환위기 '98년 2,148만 톤과 글로벌 금융위기 '08년 2,404만 톤에도 못 미치는 저점으로 경기 침체기 하한선 아래로 내려간 수요 환경임
 - 업계는 '25년 연간 4천만 톤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인식이며 반등 시점도 불투명해 '26년까지 수요 회복 지연 가능성을 경계 중임
-  환경규제 대응 중심의 설비투자가 수익성을 잠식하며 재무 부담을 확대함

 - '21~'25년 업계 평균 설비투자 5,061억 원 중 85%인 4,302억 원이 환경규제 대응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며 동기간 업계 연평균 당기순이익 4,200억 원을 상회해 투자 부담이 직접적인 이익 압박으로 작동하는 양상임
-  거시·제도 변수 개선 없이는 단기 반등이 제한적이며 비용 절감과 포트폴리오 조정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수 부진과 높은 공사비 대출 규제 PF 부실 등을 하방 요인으로 지적함
 - 업계는 원가 절감과 정비 효율화 대체연료 확대 등 자구책을 병행하되 전방 수요 회복 없이는 실적 반등의 폭과 속도가 제한될 것으로 판단함

33) 이투데이(2025.09.01.),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1674>(2025.09.25. 검색)

국내 시멘트 내수 출하량



시멘트 제조사 '25년
상반기 실적 및 전년 동기
대비 변동 요약

회사	매출 '25H1	YoY	영업이익 '25H1	YoY
한일시멘트	7,058억 원	-22.00%	654억 원	-60.00%
쌍용C&E	7,182억 원	-15.90%	334억 원	-57.00%
성신양회	5,640억 원	-6.50%	162억 원	-68.70%
아세아시멘트	5,048억 원	-11.30%	506억 원	-43.50%
삼표시멘트	3,294억 원	-18.20%	305억 원	-4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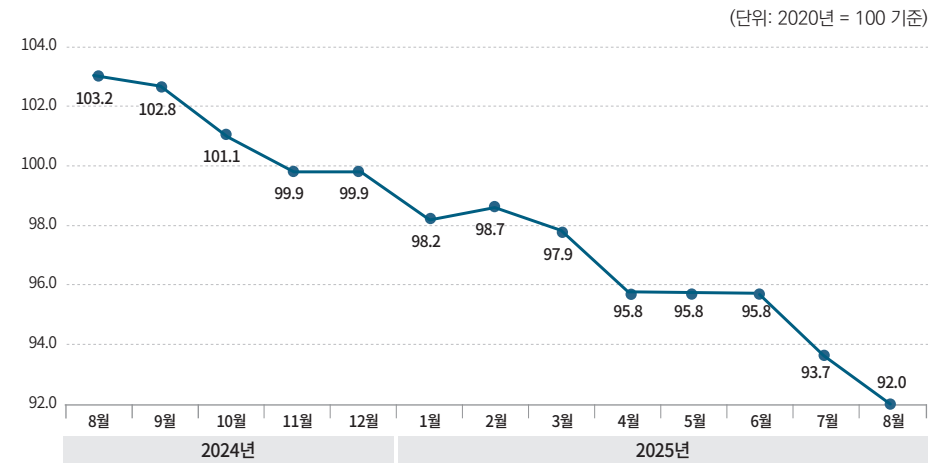
4) 모래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25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92.0p 기록

'25년 8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전월 대비 1.8%,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한 92.0p를 기록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03.2	102.8	101.1	99.9	99.9	98.2	98.7	97.9	95.8	95.8	95.8	93.7	92.0	-1.8	-10.8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9.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인천 옹진군 바닷모래 채취 허가량 대규모 반납 세입 100억 원 감소 전망³⁴⁾

-  건설경기 침체로 바닷모래 수요가 위축되면서 옹진군 관내 골재업체들이 채취 허가량을 대거 반납해 '24년 11월~'25년 11월 세외수입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100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해당 기간 바닷모래 채취 허가량이 542만 9,000m³에서 236만 3,000m³로 56.5% 축소됨
 -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소속 13개사 중 12개사가 일부 물량을 반납함
 - '23년 11월~'28년 11월 총 2,968만 m³ 허가분도 경기 침체로 반납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임
-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구조상 허가량 축소가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일반회계 전입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함

 - 옹진군은 분기별로 m³당 4,775원의 점·사용료를 부과해 세외수입으로 편성함
 - '25년 본예산에 점·사용료 200억 원을 계획했으나 허가량 축소로 실제 수입은 약 1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됨
 - 이 수입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돼 약 100억 원은 일반회계 전입 나머지는 종자 매입·방류 등 어업 소득 증대에 사용되어 왔으며 축소 시 사업 집행 차질이 불가피함
-  단기적으로는 안정화 기금으로 사업을 유지하되 건설경기 부진 지속 시 추가 반납과 세입 감소 리스크가 상존함

 - 군은 특별회계 내 안정화 기금이 있어 올해 사업은 가급적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다만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질 경우 내년에도 허가량 추가 반납과 세외수입 감소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 재정·사업 조정이 요구됨
-  바닷모래는 세척을 통해 염분을 제거한 뒤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며 수요 변동이 건설경기과 밀접하게 연동됨

 - 주택·토목 발주 위축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가 골재 수요를 직접 제약하고 있어 채취·반출입 물량의 단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34) 뉴데일리(2025.09.09.), <https://gg.newdaily.co.kr/site/data/html/2025/09/09/2025090900455.html>(2025.09.24. 검색)

인천 옹진군 앞바다 골재
채취 현장



자료: 인천환경운동연합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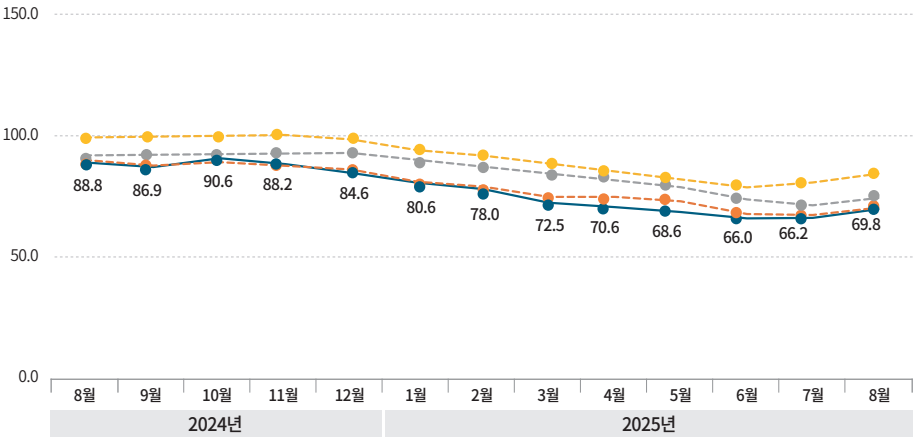
석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1 '25년 8월 유연탄 가격(뉴캐슬산) 전월 대비 증가

- ’25년 8월 유연탄 가격(뉴캐슬, 5,000kcal/kg, NAR, FOB 기준)은 톤당 69.8달러로 전월 대비 5.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1.5% 감소함
- 7월 이후 전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세를 기록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리차드베이산(+4.4%), 칼리만탄산(+4.1%), 중국남부산(+4.4%) 모두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함

(단위: 달러/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88.8	86.9	90.6	88.2	84.6	80.6	78.0	72.5	70.6	68.6	66.0	66.2	69.8	5.3	-21.5
리차드베이	89.8	87.6	89.1	88.3	85.9	81.1	79.0	74.8	74.8	73.0	67.8	67.4	70.4	4.4	-21.6
칼리만탄	91.7	92.0	93.5	93.6	92.9	89.6	86.3	84.5	81.6	78.8	73.8	71.5	74.4	4.1	-18.9
중국남부	99.2	99.9	100.8	100.2	98.5	94.0	91.9	87.6	84.0	81.5	78.8	80.8	84.3	4.4	-15.0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9.23](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9.23) 검색)

2 한국 석탄 발전소 폐지 가속화 전망³⁵⁾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면서 석탄발전소 폐지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함
- 이로 인해 올 2월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석탄발전 폐지 연도가 상당히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 정부 입장에 따르면 '40년까지 설비계획이 담길 제12차 전기본에는 발전공기업 소유 석탄발전소 13기가 폐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 현재 발전공기업은 총 53기의 석탄발전소를 보유 중이며, 이 중 40기는 제10·11차 전기본에 따라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LNG 복합화력 등으로 대체 건설할 예정임
- 나머지 13기는 대부분 '40년 이후 수명이 만료되지만, 현 정부 방침에 따라 조기 폐지 가능성이 높음

업계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환 방향에는 공감하나, 발전공기업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함

-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3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물리적 조치가 수익성 악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 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는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인구 유출, 고용 불안, 지역 경제 침체 우려를 제기하며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이에 충남도는 오는 23일 현재 계류 중인 '석탄 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함³⁶⁾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5) 전기신문(2025.09.16.),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9807>(2025.09.23. 검색)

36) 전자신문(2025.09.23.), <https://www.etnews.com/20250923000025>(2025.09.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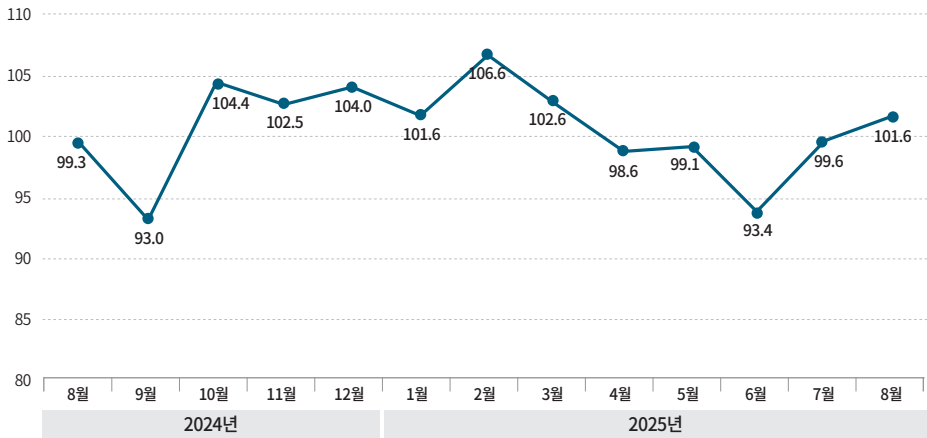
6) 철광석



철광석 가격 추이

1 '25년 8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2.0%,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

- '25년 8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01.6달러로 16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함
 - 중국의 철강 수요 견조 기대감 및 주요 철광석 생산 업체에서의 광산 운영 일부 중단 등의 영향으로 공급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철광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99.3	93.0	104.4	102.5	104.0	101.6	106.6	102.6	98.6	99.1	93.4	99.6	101.6	2.0	2.3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9.23](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9.23)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녹색 철광석 활용 확대 시 철강 생산 비용 약 12~15% 절감 가능³⁷⁾

독일의 비영리 기관 Agora Industry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유럽 철강업체들이 국내 생산을 보완하기 위해 녹색 철광석을 수입하면 비용을 줄이고 가치사슬을 보호할 수 있다고 분석함

- 녹색 철광석은 탄소중립 방식으로 생산된 철광석으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환원철인 HBI(Hot Briquetted Iron)와 DRI(Direct Reduced Iron, 직접 환원철)를 의미함
- 기관 분석에 따르면 HBI를 수입해 철강을 생산하는 경우 '40년까지 유럽 철강 생산 비용을 12~15% 절감할 수 있음
-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서 녹색 철을 수입하면 독일의 생산 비용이 약 12% 절감되며, 호주·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공급은 비용을 약 15% 줄일 수 있음

또한 Agora Industry는 EU가 발표한 산업 및 탈탄소 전략 중 하나인 청정산업협정(Clean Industry Agreement)의 성공을 위해 3단계 전략을 제안함

- 청정산업협정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고로를 수소 기반 직접환원철(DRI) 공장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와 수소 인프라를 확대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임
- 두 번째 단계는 EU 내부에서 녹색 철 가치사슬을 개발하고 녹색 철강을 위한 단일시장을 구축하는 것임
- 세 번째 단계는 전략적 국제 파트너십을 수립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수소 수요 증가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며 비용을 줄이는 것임

유럽 내 분석 결과이지만, 탈탄소화 정책이 각국의 주요 정책 기조로 강화되고 있어 HBI와 DRI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7) GMK(2025.9.20.), <https://gmk.center/en/news/importing-green-iron-will-reduce-steel-production-costs-in-europe-research/>(2025.9.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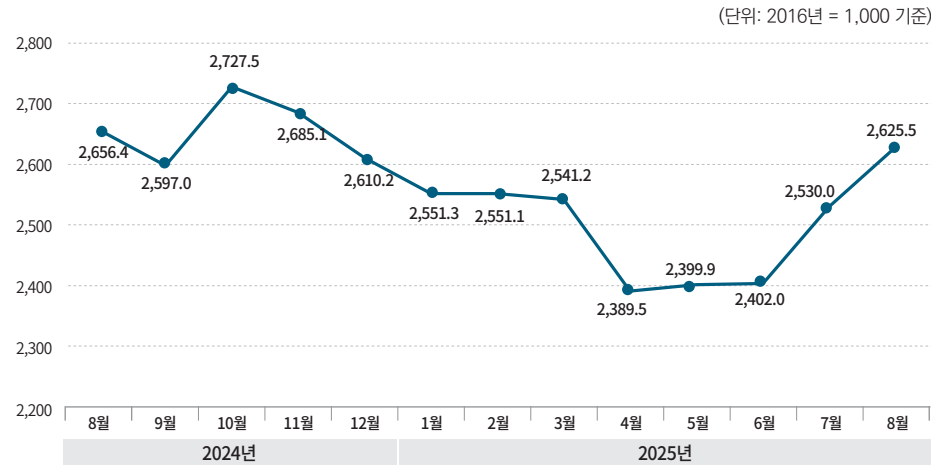
7) 기타광석



광물종합지수 추이

1 8월 광물종합지수는 2,625.5p로 2개월째 증가세

’25년 8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3.8% 증가한 2,625.5p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 (2,656.4p) 대비 1.2% 감소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2,656.4	2,597.0	2,727.5	2,685.1	2,610.2	2,551.3	2,551.1	2,541.2	2,389.5	2,399.9	2,402.0	2,530.0	2,625.5	3.8	-1.2

주: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09.24](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09.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전량 수입하던 '형석' 춘천서 채굴 본격화³⁸⁾

- 반도체와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형석이 춘천 광산에서 본격 채굴되며 전량 수입 의존 구조를 일부 완화하고 국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과 자원 안보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형석은 불화수소와 각종 불소 화합물의 원료로 반도체 공정 불순물 제거 등 핵심 용도에 쓰이는 전략 광물임
 - '19년 수출 규제 이슈를 계기로 형석의 전략적 가치와 수입 의존 리스크가 부각되었고 정부는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관리 중임
 - 국내 채굴이 시작되며 수입선 다변화와 리드타임 단축 원가 안정화 가능성이 열렸고 소재·화학·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파급효과가 기대됨
- 춘천 형석 광산은 '25년 1월 채굴을 시작했고 정밀조사 진행 중으로 10년 이상 자급이 가능한 약 35만 톤의 매장량이 추정됨
 - '25년 4월 한국광해광업공단 기술조사가 이뤄졌고 현재 정밀조사로 자원량과 품위를 검증 중임
 - 채굴 원광은 불화수소 생산을 거쳐 실리콘 웨이퍼와 반도체 칩 제조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에 투입되며 국내 소재 자립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매장량 수치는 추정치로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단계적 증산과 품질 안정화가 관건임
- 지자체와 민간의 지원으로 인력·테스트베드 투자와 연계한 산업 파급을 확대할 계획임
 - 지자체는 최근 3년간 반도체 인력 양성과 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총 2,200억 원을 투자 중이며 핵심 광물 개발과 연계를 강화할 방침임
 - 채굴 안정화와 함께 정제·가공 단계의 국내 투자 유치가 병행되면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이 가능함
 - 안전·환경 기준 준수와 지역 상생을 전제로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제고 간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8) 강원도민일보(2025.08.27.),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1721\(2025.09.25. 검색\)](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01721(2025.09.25. 검색))

8) 목재



1 '25년 1~7월 원목 수입량은 88만 3천m³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

-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제재목, 성형목재, 합판, 파티클보드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목재펠릿 수입량은 증가함
 - 제재목 수입량은 86만m³로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성형목재 수입량은 43,61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함
 - 합판(-9.1%), 파티클보드(-14.8%), 섬유판(-34.9%)의 수입량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목재펠릿 수입량은 232만 5천 톤으로 3.0% 증가함
-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감소로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
 -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적인 경기 부진으로 목재가격은 하락 또는 보합세를 나타냄
 - 태국산 PB의 반덤핑관세로 중국산PB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5년 누적 (1-7월)	2024년 누적 (1-7월)	증감률 (%)
원목(천m³)	883	953	-7.3%
제재목(천m³)	856	908	-5.7%
성형목재(톤)	43,612	47,128	-7.5%
합판(천m³)	745	820	-9.1%
파티클보드(천m³)	724	850	-14.8%
섬유판(천m³)	123	189	-34.9%
목재펠릿(천 톤)	2,325	2,257	+3.0%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5.09.02.),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210918&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5.09.2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210918&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5.09.24.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 국립산림과학원, 펄프·제지 기술 재도약 심포지엄 개최³⁹⁾

-  국립산림과학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펄프·제지 기술 재도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친환경 바이오소재로서 펄프 활용성 강화와 지속 가능한 제지 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함

 - 1부 세션에서는 전환기 한국 제지산업, 펄프·제지 기술 발전 연구, 펄프 기반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의료 소재 연구, 펄프 기반 이차전지 소재 적용 연구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됨
 - 2부 세션에서는 관련 기업·협회·학계·정부기관 담당자가 모여 펄프·제지 산업의 수요 다양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모색함
-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는 펄프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산 목재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기술 재도약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적·융복합적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힘
 - 펄프 기반 이차전지 소재와 의료 소재 등 새로운 응용 분야 개발을 통해 펄프·제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함
-  이번 심포지엄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펄프 원료를 국산 목재로 대체하고, 전통적인 제지 산업을 첨단 바이오소재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함

 - 특히 이차전지와 의료 소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펄프 활용 확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39) 산림청 보도자료(2025.08.29.),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210769&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eb%aa%a9%ec%9e%ac&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5.09.2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210769&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eb%aa%a9%ec%9e%ac&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5.09.24. 검색))

9) 고철



① '25년 8월, 고철(생철) 가격 전월 대비 2.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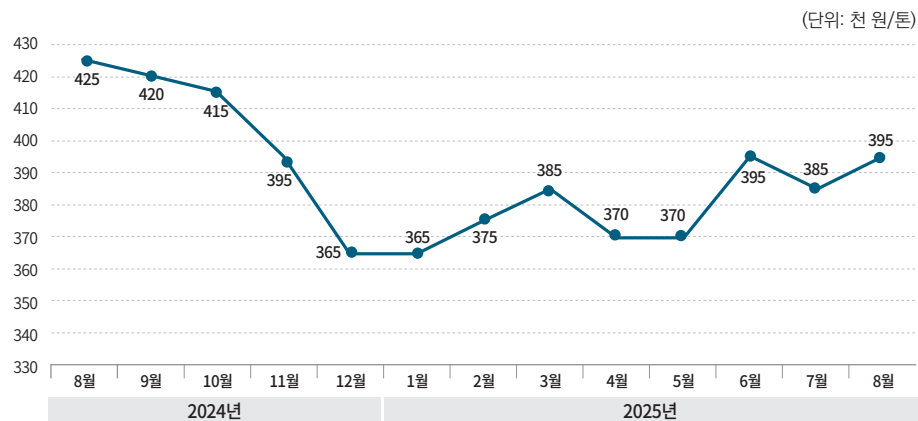
● '25년 8월 고철(생철) 가격은 톤당 395천 원으로, 전월(385천 원) 대비 2.6% 상승세를 나타냄

- 이는 '24년 12월 저점(365천 원) 이후 점진적 반등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6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재차 회복된 것임
- 다만, 전년 동월(425천 원) 대비로는 7.1% 하락해 여전히 전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월별 추이를 보면, '24년 하반기에는 지속적인 하락세가 이어져 12월까지 큰 폭의 가격 하락이 있었으며, '25년 들어서는 완만한 반등세가 관측됨

- 특히, 3월과 6월에는 두드러진 상승이 있었고, 8월에는 다시 6월 고점을 회복하며 가격이 유지됨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9.22.),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9.23.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9.23.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② '25년 8월, 고철 수입량 3개월 연속 50만톤 이상 기록⁴⁰⁾

 '25년 8월 고철(스크랩) 수입량은 53만 2,400톤으로, 6월 이후 3개월 연속 50만 톤 이상을 유지함

- 이는 전월 대비로도 높은 수준이나, 전년 동월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로 파악됨
- 국내 제강사들의 수요와 국제 가격 변화에 따라 항만 입항량 증가세가 지속 중이며, 관련 하역·저장 시설의 가동률도 높게 유지되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0) 스틸데일리(2025.08.29.), [https://www.ste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22\(2025.09.24. 검색\)](https://www.ste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422(2025.09.24. 검색))

10) 철재



선철, 슬래브 및 빌렛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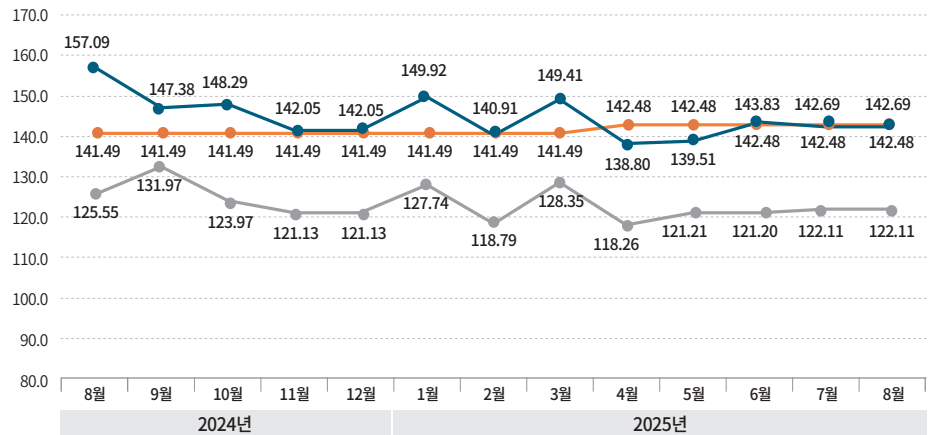
● 선철
● 슬래브
● 빌렛

1 '25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선철, 슬래브, 빌렛 모두 전월과 같은 수준 유지

8월 선철, 슬래브, 빌렛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같은 142.48p, 142.69p, 122.11p를 기록함

- 철광석을 고로에 투입하여 제선 공정 후 생산된 선철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4월 이후 소폭 올라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함
- 전로 및 전기로를 통해 생산되는 반제품인 조강의 대표 품목 중 하나인 슬래브와 빌렛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각각 9.2%p, 2.7%p 하락함
- 철광석은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선철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슬래브와 빌렛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하락한 모습을 보임

(2020=1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선철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0.0	0.7
슬래브	157.09	147.38	148.29	142.05	142.05	149.92	140.91	149.41	138.80	139.51	143.83	142.69	142.69	0.0	-9.2
빌렛	125.55	131.97	123.97	121.13	121.13	127.74	118.79	128.35	118.26	121.21	121.20	122.11	122.11	0.0	-2.7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9.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9.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국내 철강업계, 미국 50% 관세 직면으로 산업 재편 불가피 전망⁴¹⁾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음

- 6월부터 관세율이 50%로 인상되자 대미 수출액은 5월 3억 3,000만 달러에서 8월 1억 5,000만 달러(전년 대비 -32.1%)로 급감함
- 업계는 한미 정상회담 계기를 통한 관세 완화에 기대했으나 추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망감이 확산됨
- 정부는 무역보험, 세제, 물류 지원 등 패키지 대책과 함께 철강·알루미늄 업종 대상 5,700억 원 규모 지원을 발표함
- 국회에서는 ‘K-스틸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기술개발 보조금·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임

 중국의 감산 움직임과 국내 구조조정 가속화가 업황 개선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은 노후설비 폐쇄 및 신규 증설 제한을 포함한 감산 계획을 발표, 연간 5,000만 톤 감산 추진이 예상됨
- 중국 철강 생산량은 올해 누적 1,900만 톤 줄어들며 과잉공급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음
- 국내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일부 제철소와 공장 가동을 축소하거나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을 진행 중임
- 전문가들은 미국 관세와 중국 저가 공급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국내 업계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1) 머니투데이(2025.09.08.), [https://www.mt.co.kr/industry/2025/09/08/2025090415591540487\(2025.09.23. 검색\)](https://www.mt.co.kr/industry/2025/09/08/2025090415591540487(2025.09.23. 검색))

3 철강업계,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로 실적 기대⁴²⁾

◆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개선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매출 71조 원, 영업이익 2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19.7% 증가가 예상됨
- 현대제철은 파업·업황 악화로 저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영업이익이 147% 증가한 3,945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됨
- 전년 대비 회복세는 뚜렷하나, '22년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실적이며 전반적으로 원가 절감 효과가 실적 반등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됨

◆ 연료탄 가격 하락과 반덤핑 관세 효과로 제품 가격이 방어되면서 업계 수익성 개선 기대가 이어지고 있음

- 제철용 연료탄 가격은 최근 톤당 188달러로, 8월 대비 12%·연초 대비 9% 하락해 원가 부담을 완화함
- 후판 가격은 조선사 협상으로 톤당 80만 원까지 오르고 유통가격도 90만 원대에 안착했으며, 열연 가격도 유통가가 톤당 87만 원으로 연초 대비 상승하는 등 안정적 흐름을 보임
- 중국산 후판, 중국·일본산 열연에 대한 반덤핑 관세 판정이 제품 가격 하락 압력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2) 뉴시스(2025.09.1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2_0003326474(2025.09.23. 검색)

4 철강업계, 구조조정보다 설비조정·저탄소 전환 중심 대책 추진⁴³⁾

-  정부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일본산 저가 공세, 내수 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린 철강업계를 위해 ‘구조조정’이 아닌 ‘설비조정과 전환 지원’에 방점을 둔 대책을 마련 중임

 - 올해 상반기 국내 철강 3사의 평균 가동률은 70%대에 머물렀으며, 현대제철·동국제강은 일부 공장 가동을 멈춤
 - 포항시는 지난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업황 악화가 심각한 상황임
 - 정부는 노후설비 폐쇄·매각을 유도하고 전기로 확대, 수소환원제철·CCUS 등 저탄소 기술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임
 -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에 대응해 후판·열연 등 수입재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추진하며 추가 대응책도 병행함
-  제도적 기반 강화와 중장기 체질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도 속도를 내고 있음

 - 국회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와 녹색철강 기술개발·설비 보조, 고용 보조금 지원 등을 담은 ‘K-스틸법’을 추진하고 있음
 - 해당 법안은 기업 간 설비 통폐합이나 M&A 시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도 포함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 강화’, ‘마진 압박’, ‘탄소중립 부담’ 등 4중 위기 속에서 통합적 국가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점진적 지원을 확대하며 연착륙형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3) 파이낸셜뉴스(2025.09.14.), <https://www.fnnews.com/news/202509141832196874>(2025.09.23. 검색)

11) 자동차



① '25년 7월 자동차산업 동향, 내수·수출·생산 모두 증가세 기록⁴⁴⁾

- 7월 내수는 전월 대비 5.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138,503대를 기록함
 -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수요를 지지하는 가운데 전동화 중심의 신차 및 제품 믹스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 전기차(+61.4%) 등 친환경차 판매가 내수 증가를 견인함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대비 45.1% 증가한 73,413대로 전체 내수의 53%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 비율을 기록함. 전기차는 가격경쟁에 따른 프로모션 확대와 신차효과로 국산 43.8%, 수입 122.3%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는 36.7%, 수소차는 176.8% 증가함
- 7월 수출은 전월 대비 13.3%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211,854대를 기록함
 - 유럽 지역으로의 친환경차 및 신차 선적 확대와 한국지엠의 전년도 기저효과('24년 7월 임단협 과정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가 수출 증가를 견인함
 - 친환경차 수출은 전기차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하이브리드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한 68,163대를 기록하여 전체 자동차 수출의 32.2%를 차지함
- 7월 생산은 전월 대비 10.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한 316,281대를 기록함
 - 작년 7월 한국지엠 등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 차질 기저효과가 전체 증가 폭을 키웠으며, 일부 업체 신차효과와 수출 호조가 맞물려 생산 증가를 견인함
 - 현대는 7.0% 증가, 기아는 0.1% 감소했으며, 한국지엠은 59.9% 급증, KG모빌리티는 20.8%, 르노코리아는 47.0% 증가함

단위 : 대, 백만 \$, %

'25년 7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률		
	연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7월
내수	1,626,245	132,396	930,938	145,842	138,503	965,131	-5.0	4.6	3.7
(국산차)	1,344,432	107,877	775,455	116,724	110,397	790,172	-5.4	2.3	1.9
(수입차)	281,813	24,519	155,483	29,118	28,106	174,959	-3.5	14.6	12.5
OEM 수입	20,318	2,687	8,811	1,355	1,049	10,105	-22.6	-61.0	14.7
수출	2,782,612	200,181	1,667,261	244,318	211,854	1,623,356	-13.3	5.8	-2.6
(완성차 수출액)	70,786	5,360	42,361	6,343	5,831	42,190	-8.1	8.8	-0.4
(부품 수출액)	22,533	2,069	13,381	1,799	1,920	12,694	6.7	-7.2	-5.1
생산	4,128,242	290,906	2,436,188	353,230	316,281	2,427,382	-10.5	8.7	-0.4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08.2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Produce&board_id=926&menunum=0003&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9.24.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4)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08.2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Produce&board_id=926&menunum=0003&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9.24. 검색)

2 '25년 8월 자동차 수출 역대 8월 최대 실적, 대미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⁴⁵⁾

-  '25년 8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이 작년 8월보다 8.6% 증가한 55억 달러로 역대 8월 최대 실적을 기록함
 - 8월 물량 기준 수출은 20만317대로 작년 8월보다 5.5%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미국으로의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의 25% 품목 관세 부과 영향으로 작년 8월보다 15.2% 감소한 20억9,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3월 -10.8%,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 8월 -15.2%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미국 시장 내 최대 경쟁자인 일본차에 붙는 품목 관세가 현지시간 16일부터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아져 대미 수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반면 EU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54.0% 증가, 기타 유럽은 5억5,000만 달러로 73.2%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함
-  친환경차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성장을 뒷받침함
 - 8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9,497대로 작년 동월 대비 26.6% 증가했으며, 전기차 수출은 2만2,528대로 78.4% 급증하여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
 -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11.0% 증가한 4만3,277대를 기록했으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3,692대로 12.1% 감소함
-  8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3만 8,809대로 작년 동월 대비 8.3%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친환경차 내수는 36.1% 증가한 7만 393대로 전체 내수의 50.7%를 차지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5) KBS(2025.09.1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8761&ref=A\(2025.09.22. 검색\)](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8761&ref=A(2025.09.22. 검색))

3 한일 대미 자동차 관세 10%p 격차 발생, 한국 자동차업계 우려 확산⁴⁶⁾

-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함**

 -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현행 27.5%에서 15%로 낮아지는 반면,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는 25% 관세가 계속 적용되어 일본보다 10%p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게 됨
 -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며, 현대차 매출에서 미국 시장이 30%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적 악화가 우려됨
-  **'25년 8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작년 8월보다 15.2% 감소한 20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 대미 자동차 수출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한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과 영국이 관세 협상 후 자동차 관세 인하에 각각 56일, 53일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 한미 세부 협상이 마무리되어도 연내 자동차 관세 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정부는 관세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한에 쫓겨 손해 보는 합의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 관세 인하 시점 지연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자동차부품 업계의 비중이 높은 대구경북 산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6) 매일신문(2025.09.16.),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91617135916564\(2025.09.24. 검색\)](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91617135916564(2025.09.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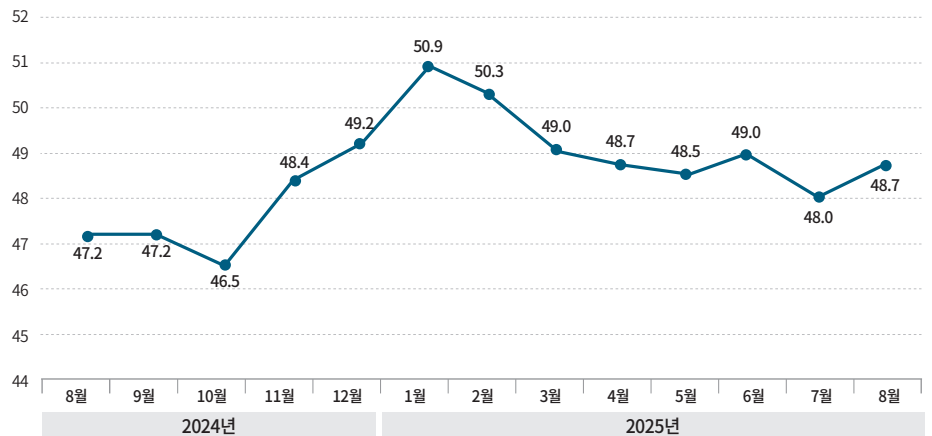
12) 잡화



1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⁴⁷⁾, '25년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는 48.7로 6개월 연속 위축⁴⁸⁾

- '25년 8월 미국 ISM 제조업 PMI는 48.7로 전월(48.0)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시장 예상치(49.0)에는 미치지 못함
- 6개월 연속 기준선(50)을 하회하며,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수축 국면에 있음을 시사함
- 생산지수는 47.8로 급락(전월 51.4)한 반면, 신규 수주는 51.4로 반등(전월 47.1)함
- 고용지수는 43.8로 여전히 위축세이나 하락 속도는 둔화, 재고 및 수주 잔고 감소 폭은 확대되어 수요 부진 지속을 반영함
- 투입물가 지수는 63.7(전월 64.8)로 소폭 둔화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냄
- 한편, 설문 응답 기업들은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와 공급망 혼란을 주요 부담 요인으로 지목함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2025.09.01.),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7)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48) Trading Economics(2025.09.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5.09.23. 검색\)](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5.09.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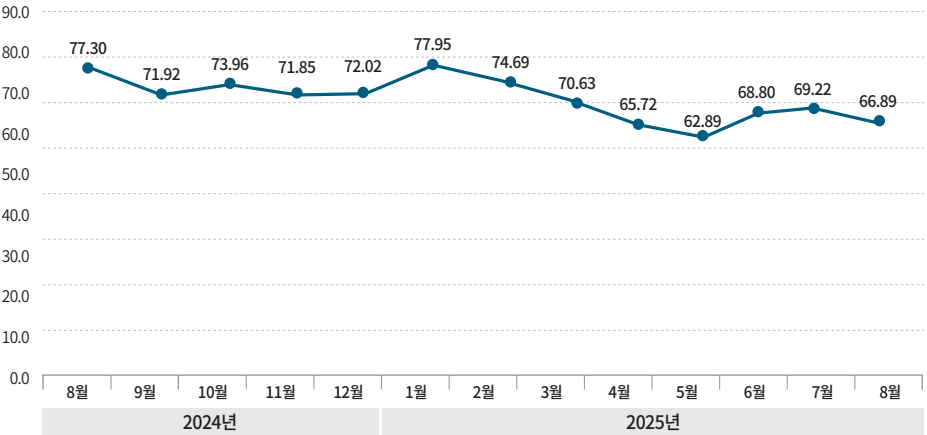
13) 유류



1 '25년 8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3대 유종 모두 하락

- '25년 8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3.4% 하락한 66.89달러를 기록함
 - 미국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석유 수요 둔화를 전망했으며, 세계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지속 하락해옴
 - 올해 1월부터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4.2% 하락하여 저점을 찍었으나 6월에 반등한 다음 7월에도 소폭 증가했으나 8월에 다시 하락함
 - 다만, 국제사회의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유가는 증감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단위: 달러/배럴)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77.60	73.52	74.94	72.61	73.23	80.41	77.92	72.49	67.74	63.73	69.26	70.87	69.39	-2.1	-10.6
Brent	78.88	72.87	75.38	73.40	73.13	78.35	74.95	71.47	66.46	64.01	69.80	69.55	67.26	-3.3	-14.7
WTI	75.43	69.37	71.56	69.54	69.70	75.10	71.21	67.94	62.96	60.94	67.33	67.24	64.02	-4.8	-15.1
평균	77.30	71.92	73.96	71.85	72.02	77.95	74.69	70.63	65.72	62.89	68.80	69.22	66.89	-3.4	-13.5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9.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포스코, 알래스카 LNG 참여 검토⁴⁹⁾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주사업자인 글렌파른과 예비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참여 검토에 나섰다

-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부 알래스카 노스 슬로프(North Slope)의 대규모 가스전을 기점으로 남부 닛키스키(Nikiski)까지 약 1,300km 구간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수출 터미널을 세우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임
- 포스코는 향후 20년간 연간 100만 톤 규모의 LNG 도입 방안을 협의 중이며, 약 1,3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에서 철강재 공급 기회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 단계로, 사업성과 수익성 검토 후 본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음

사업비가 44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인 만큼,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임

- 알래스카의 혹한과 동토 지형으로 인해 시공·운영 과정에서 추가 비용 발생 위험이 크며, 환경영향평가에서 습지 파괴·원주민 생활권 침해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국제 LNG 가격 하락과 탈탄소 기조 강화로 장기적 경제성 확보가 불투명함
- 다만 아시아 수요 회복 가능성과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전략을 감안할 때 장기적 기회 요인도 존재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SRE타임스(2025.09.15.), [https://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5934\(2025.09.23. 검색\)](https://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85934(2025.09.23. 검색))

3 유가 하향 안정화 지속 전망⁵⁰⁾

-  **OPEC+가 가격 방어 대신 시장점유율 확대를 택하면서 감산 완화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음**
 - OPEC+의 감산은 1단계인 공식감산, 2단계인 1차 감산, 3단계인 2차 감산으로 이뤄져 있으며, 2차 자발적 감산분 220만 b/d는 이미 해소된 상태임
 - 10월에는 하루 13만 7천 배럴 증산이 확정되었으며, 이는 원래 '26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1차 감산분 165만 b/d의 조기 해제로 해석되어 1년 내 전량 복원 가능성도 제기됨
 - 사우디 아람코는 10월 아시아 정유사 등에 적용하는 가격조정계수인 OSP(Official Selling Price)를 배럴당 1달러 인하하며 가격 유지보다 시장점유율 확보를 우선하는 기조를 드러냄
-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경고성 발언에 그치면서 원유 공급이 차단되지 않는 점도 유가 하향 가능성을 높임**
 - 러시아 원유 수출량은 8월 이후 증가해 최근 하루 390만 배럴로 '24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주요 구매국은 중국, 인도에 이어 확인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그림자 선단'을 통한 수출도 지속됨
 -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언행 불일치와 미국의 물가 부담을 고려할 때 실제 강력한 제재 단행은 어렵다고 평가하며, 유가 하향 안정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에너지플랫폼뉴스(2025.09.15.), <https://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96286>(2025.09.23.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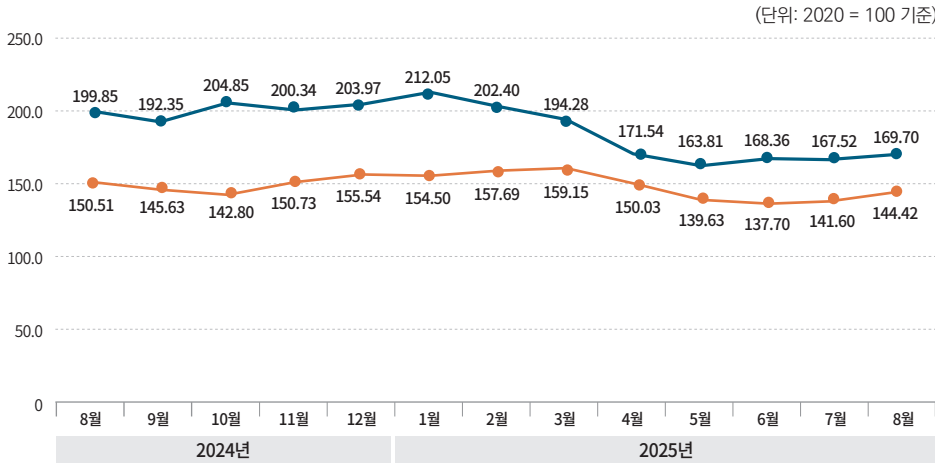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1 '25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 나프타 및 에틸렌 소폭 상승

8월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1.3% 상승한 169.70p, 2.0% 상승한 144.42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5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유 가격 하락이 시작된 1월 이후 동반 하락하였으나 6월에 상승한 다음 7월에 다시 소폭 하락한 후 8월에 상승함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5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3월 이후 6월까지 하락했으며 7월과 8월에 지속적으로 상승함
-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정유산업과 함께 전방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NCC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변동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99.85	192.35	204.85	200.34	203.97	212.05	202.40	194.28	171.54	163.81	168.36	167.52	169.70	1.3	-15.1
에틸렌	150.51	145.63	142.80	150.73	155.54	154.50	157.69	159.15	150.03	139.63	137.70	141.60	144.42	2.0	-4.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12\(2025.09.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12(2025.09.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국내 정유업계, 친환경·신사업 전환 가속⁵¹⁾⁵²⁾

- 
국내 정유업계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에너지 전환 가속화 속에서 기존 정유 의존도를 줄이고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음
 - SK이노베이션은 SK온과 합병을 추진해 배터리·윤활유 등 사업을 결합하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강화함
 - GS칼텍스는 여수 수소 허브 구축과 CCUS 사업, 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추진하며 저탄소 사업 기반을 확장 중임
 - 에스오일은 9조 원 규모의 야힌 프로젝트를 통해 TC2C 신기술을 상용화하며 석유화학 사업 비중을 기존 12%에서 25%까지 확대할 계획임
 - HD현대오일뱅크는 '32년까지 대산항 일원에 바이오연료·열분해유·암모니아 수소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임
- 
이러한 사업 전환은 친환경·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며 정유사들이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임
 - SK에너지는 SAF(지속가능항공유) 대량 생산체계를 갖추고 국내 최초로 유럽 수출에 성공하며 항공 탈탄소 수요에 대응함
 - GS칼텍스는 재생에너지 직접 도입과 탄소가격 반영 투자평가를 통해 기후 위험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마련함
 - 에스오일은 자가발전 설비 확대를 통해 온산공장의 전력 자급률을 42%까지 높이고 ESG 기반 친환경 제품 공급을 강화함
 - 정유업계 전반은 탄소중립 달성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며 '기후 해결사'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반론보도(2025.08.27.), <https://www.banronbod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12>(2025.09.23. 검색)

52) 매일일보(2025.09.11.),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80945>(2025.09.23. 검색)

3 국내 석유화학 업계, 업황 반등 기대감 고조⁵³⁾

📌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에틸렌 수익성 개선과 경쟁국 구조조정 움직임으로 업황 회복 기대가 커지고 있음

- 에틸렌 스프레드는 6월 톤당 160.5달러에서 8월 214달러까지 상승하며 바닥을 벗어나는 흐름을 보임
- 통상 250달러 이상에서 흑자가 가능하나 상반기 국내 석화 업체 매출원가율은 98.6%로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상황임
- 중국 업체의 가동률 하락, 국내 업체의 감산 등이 맞물리며 하반기 적자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의 노후 설비 정리 검토, 일본 주요 석유화학사들이 범용 제품 통합으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중임

📌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자체 구조조정과 해외 변수에 따라 불황 탈출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10대 업체에 연말까지 최대 370만 톤 규모 NCC 감축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 LG화학·GS칼텍스,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 등이 NCC 통합 논의를 진행하며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고 있음
-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아직 회복을 단정하긴 이르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3) 중앙일보(2025.09.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70\(2025.09.23. 검색\)](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70(2025.09.23.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아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9월 30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